

농어촌공사, 대한민국 기후경영대상 수상... ‘온실가스 감축’ 모범



한국농어촌공사는 14일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에 대응한 공로를 인정받아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가 후원하는 2023 대한민국 기후경영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공사는 ‘농어촌愛Green가치 2030’을 ESG경영 비전으로 선포한 이래, 매년 ESG 경영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현황 모니터링, 성과점검 시행으로 ESG 경영의 실현 가능성을 높여오고 있다.

특히, 환경 분야에서는 E.C.O 전략을 수립해 ▲(Energy) 저탄소 에너지 사업 확대 ▲(Climate)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선도 ▲(Operation) 환경보전 및 녹색경영 실현을 위한 활동을 전개해오고 있다.

저탄소 에너지사업 분야에서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2GW 이상 개발을 목표로 농업생산기반시설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확대와 친환경 에너지 절감시설 보급을 통해 농어가 난방비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있다.

농업분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농업용수,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기후 변화 영향·취약성 평가를 실시하고, 영농현장에서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 기후변화 영향정보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농업·농촌 기후변화 영향정보 제공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범 운영 중이다.

물관리 전문기관으로서 양질의 농업용수 관리 및 공급을 위한 사업추진, 훼손된 자연 생태계 회복을 위한 환경보전·탄소중립 활동, 일회용품 제로, 쓰레기 담기 등 생활 속 실천 캠페인 추진을 통한 녹색경영 활동을 전개해오고 있다.

이병호 사장은 “공사는 이상기후에 대응하여 체계적이고 현실성 있는 계획을 마련하는 한편 친환경·저탄소 농어촌 공간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동아닷컴 김상준 기자 ksj@donga.com

Copyright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